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사한 연장 가능. 연준 위원들은 7월 금리인하에 신중
 - 미국 1/4분기 GDP 성장률(확정치), 수정치에서 하향. 연속 실업급여청구는 급증
 - 독일 7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하락. 6월 Ifo 수출기대지수도 부진
 -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미국의 자동차 25% 관세 부과 요구는 수용 불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사한 연장,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협상 우려 완화,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사상 최고치 근접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위 및 광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부 언론의 차기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 보도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1/4분기 성장률 하향 등이 배경
독일은 방위비 증액 효과 전망과 미국 국채시장 영향이 상충하며 강보합 마감
- ※ 뉴욕 1M NDF 증가 1355.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8.0원, 0.08% 상승). 한국 CDS 강보합

		6/26일	6/25일	전일대비			6/26일	6/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141.0	6,092.2	+0.80%	국채 금리 10y	미국	4.24%	4.29%	-5bp
	유럽	537.48	536.98	+0.09%		독일	2.57%	2.57%	+0bp
	중국	3,448.5	3,456.0	-0.22%		영국	4.47%	4.48%	-1bp
	일본	39,585	38,942	+1.65%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3,079.6	3,108.3	-0.92%		중국	51bp	51bp	+0bp
환율	달러지수	97.31	97.68	-0.38%	위험 지표	EMBI+	-	374	-
	유로화	1.1701	1.1659	+0.36%		VIX	16.59	16.76	-1.01%
	엔화	144.42	145.24	+0.57%		WTI유	65.24	64.92	+0.49%
	위안화	7.1676	7.1741	+0.09%	원자재	구리	506.6	491.8	+3.02%
	원화	1,356.9	1,362.4	+0.41%		금	3,327.9	3,332.3	-0.1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 연준 위원들은 7월 금리인하에 신중**
 - 래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현재 7/9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언급. 또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부연.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이 마감시한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수도 있다고 발언
 -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도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유예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 피력. 10%의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국가에 한해 제한적 수준에서 낮출 수 있다고 첨언
 - 한편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7월 금리인하에 신중한 모습.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가을에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으며,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설명. 보스턴 연은의 데일리 총재도 7월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발언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지금은 인내하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역시 금리인하 전에 경제 전망 불확실성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관련 질문에 백악관은 해당 사안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고 답변.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워시 전 이사, 베센트 재무장관, 윌러 현 이사, 해셋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거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4분기 GDP 성장률(확정치), 수정치에서 하향. 연속 실업급여청구는 급증**
 - 1/4분기 GDP 성장률(확정치, 전기비연율)은 -0.5%로 수정치(-0.3%) 대비 하향 조정. 이는 세부항목 가운데 개인소비가 좀 더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
 - 6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3.6만건으로 전주(24.6만건) 대비 감소했으나, 연속 청구건수는 197.4만건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대. 일부에서는 고용 둔화를 우려. 5월 잠정주택판매지수는 72.6으로 전월비 1.8% 상승. 다만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주택경기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주택담보대출에서 암호화폐 담보로 인정. JPMorgan은 성장률 전망 하향

- 연방주택금융청은 국책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대출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이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부합한다고 설명
- JPMorgan은 금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2.0%→1.3%), 고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지속적인 달러화 약세도 전망

■ 이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 IAEA와의 모든 협력 중단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휴전 이후 첫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미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 의회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는 결의안 승인. 한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새로운 평화의 기회를 넓혔다고 자평

■ 독일 7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하락. 6월 Ifo 수출기대지수도 부진

- 7월 GfK 소비자신뢰는 -20.3으로 전월(-20.0) 대비 소폭 하락. 가계소득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저축 선호도 동시에 상승. 한편, 6월 Ifo 수출기대지수 역시 -3.9로 전월(-3.0) 대비 부진. EU와 미국의 관세 협상 난항 등으로 기업의 수출 기대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

■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 가능. 고용 둔화 징후 발생

- 베일리 총재는 최근 수개월 만에 고용 둔화 징후가 보인다고 언급.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물가의 중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 금리는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

■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미국의 자동차 25% 관세 부과 요구는 수용 불가

- 아카자와 재생상은 7/9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나,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PCE 물가지수,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및 연준 쿡 이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장기채 펀드, 부채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자금 이탈 심화 - Financial Times**
(Fears over US debt load and inflation ignite exodus from long-term bonds)
 - 2/4분기 국채와 회사채 등이 포함된 미국 장기채 펀드에서 110억달러의 순유출 발생(EPFR). 이는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년 초 이후 최대 규모. 아울러 지난 3년간 해당 펀드에 유입된 분기별 평균 자금이 약 2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 이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부채의 대폭 증가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 이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채 매입을 기피(DoubleLine). 또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상회하는 가운데, 무역정책이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PGIM)
-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 재정 부담 증가제한적 경제 성장 효과 유도할 소지 - The Economist**
(How the defence bonanza will reshape the global economy)
 -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진국들이 국방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NATO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0%로 상향. 이러한 예산 증액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미국을 제외한 NATO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연간 GDP 대비 1.5%p의 국방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며, 이에 사회복지 예산 축소 혹은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
 - 반면 이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현대 무기의 생산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AI 발달로 제조업 일자리보다는 기술기업 수익 증가가 예상. 이에 정부는 안보 목적의 효율적 지출에 집중해야 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국방비 증액 시도는 비용 증가만 초래할 우려
- **미국 트럼프의 부문별 관세 위협,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 타결을 저해 - 블룸버그**
(Trump's Threat of More Tariffs Makes US Trade Partners Wary of Signing Deals)
 - 상무부는 주요 국가안보 부문(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 미국은 일본, 인도, EU 등과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나, 주요 교역국들은 이러한 부문별 관세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상황
 - 영국도 미국과 무역합의에 성공했으나 철강에 대한 25% 관세 유지로 부분적 수준에 그친 상황. 한편 EU는 자동차(25%), 철강(50%) 관세로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협상 진전은 기대난.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이견으로 7/9일 이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

- **국제금융시장의 여름철 거래량 감소, 급격한 가격 변화 가능성에 유의 - Financial Times**
(Markets should watch out for the summer fling)
 -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전통적으로 위기 시 강세를 나타냈던 엔화가 오히려 약세. 이에 달러화 약세 및 엔화 강세에 베팅했던 헤지펀드 등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신속하게 청산. 이와 같이 여름철은 통상적으로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반전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
 - 작년 여름에도 미국 기술주 주가 급락 및 엔화 가치 급등 현상이 발생. 현재도 유럽의 통화 및 증시에는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미국 증시와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부진. 다만, 트럼프 정책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여름에는 작은 흐름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
- **미국 트럼프의 파월 의장 교체 검토, 연준의 완화적 기조 강화 기대 증가 - Reuters**
(Market bets on a more dovish Fed as Trump eyes Powell's replacement)
- **미국 백악관의 예산안 경제효과 분석, 비현실적 가정으로 실제 경제 여건과 괴리 - 블룸버그**
(White House Math on Tax Bill Is Pure Imagination)
- **미국 트럼프의 경제정책, 자국 경제 위축 및 글로벌 질서 재편 등을 초래 - Financial Tim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onald Trump's second coming)
- **미국의 이민 문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만으로는 해결에 한계 - 블룸버그**
(Deportations alone can't fix US immigration problems)
- **미국의 이란 공격, 중국의 트럼프 고립주의 재고를 유도 - Financial Times**
(US strikes on Iran force China to reconsider Donald Trump's isolationism)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